



전북대 청리광 박사과정생, 농공학회사 '장관상' 수상

전북대학교 청리광 박사과정생(지역건설공학과, 지도교수 장태일)이 최근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농공학회 학술발표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청리광 학생은 '겨울 밀 물관리를 위한 APSIM-머신러닝 융합 프레임워크 개발' 연구를 통해 물리 기반 작물 모형(APSIM)에 인공지능(AI) 분석을 접목한 새로운 융합 관리체계를 제안했다.

이 연구는 겨울 밀의 생산성과 탄소배출량을 높이는 한편 기후 변화에 대응한 실시간 의사결정과 관리 전략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물관리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APSIM 기반 예측과 AI 학습 기능을 통합한 실시간 의사결정 체계를 구현함으로써, 복잡한 농업환경에서 물관리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이에 연구진은 이 기술이 향후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탈탄 단위 물수지 평가, 스마트팜 자동 관개 시스템 등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김현규, 차세대 3D DRAM 연구 '우수'

전북대학교 전자정보공학부 김현규 박사과정생(지도교수 김기현)이 국제 학술대회 IEEE TENCON 2025에서 'Best Paper Award(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2일 전북대에 따르면 김현규 박사는 기존 DRAM 메모리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고집적·저전력·고속 동작이 가능한 차세대 1T 3D DRAM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제안된 소자는 커패시터가 없는 1T 구조로 우수한 데이터 유지 특성, 높은 집적도 및 효율적인 열 방출 성능을 확보했으며, 금속 실리사이드 공정을 통한 Schottky contact과 ONO 절연막 두께 조절을 통해 Charge Trap 기반 메모리에서도 고속·저전력 동작이 가능함을 입증했다.

김현규 학생은 "이번 연구는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의 집적 한계를 극복하고, AI·고성능 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메모리 구조를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은성 기자



김현규 박사과정생



남원 운봉읍, 취약계층 반찬나눔 지원 성료

남원시 운봉읍(읍장 이은주)과 (사)남원지역 활력혁신센터(센터장 이지선)는 지난 5월 농촌돌봄공동체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후, 지역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한 반찬 나눔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 사업은 5월부터 11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35가구를 대상으로 월 2회 반찬을 지원했으며, 여름·추석·겨울철에는 특별식으로 보양식을 마련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겼다. 반찬 전달은 지리산노인복지센터 소속 운봉읍 생활지원사 20명이 직접 참여하여 가정마다 정성스러운 반찬과 함께 인부를 전했으며, 운봉읍 행정복지센터는 반찬 배달과 함께 '1일 1기부 방문'을 병행하며,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세심히 살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 학교 밖 청소년, 도예 작품 첫 전시회 개최

김제시는 2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한 자기계발 프로그램 '夢(夢)소(몽작소)' 전시회를 전주한옥마을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김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이유미)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프로그램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작품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자리로 마련됐다. 청소년들은 흙 다루기, 조형, 유약, 물레 작업 등 전 과정을 직접 체험했으며, 머그컵, 접시, 화병 등 개인 작품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공동 작품 '그루터기'도 완성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흙을 다루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한 참여 청소년은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생각이 정리됐으며, 완성된 작품을 보니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금융산업 진흥 명예 홍보대사 위촉

전북자치도, 미래오성그룹 김범창 회장 위촉...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에 힘 실어

전북특별자치도는 2일 도청에서 미래오성그룹 김범창 회장을 금융산업 진흥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하며 금융산업 진흥 정책의 국내외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는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부가 위치한 전북의 강점을 기반으로 금융산업 생태계 조성과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홍보대사 위촉은 전북 금융산업의 미래 비전과 정책 방향을 국내외에 빠르게 확산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홍보대사는 향후 △전북 금융도시 브랜드 제고 △전북국제금융센터 조성 홍보 △금융기관 유치 이미지 확산 △전북 금융정책의 국내·국제 소통 강화 등 역할을 수행하며,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에 필요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게 된다.

이날 위촉된 김범창 회장은 국내외에서 디지털 금융 자산 투자 STO(토큰증권발행), 실물자산(KRWA) 토큰화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중국·말레이시아 등 국제 금융무대에서도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김 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토대로 전북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대외적으로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범창 회장은 "전북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에 힘을 보태겠다"며 "국내외 금융기업이 전북에 활발히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만호 기자

장수군, '2025 장수군체육상 시상식' 개최

장수군체육회가 지난달 28일 한누리전당 산다관에서 '장수군체육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체육발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헌신한 체육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화합을 다지는 연례 행사로 마련됐다.

올해 시상식에는 최훈식 장수군수, 박희승 국회의원, 박용근 전북특별자치도의원, 김광훈·김남수 군의원을 비롯해 기관·사회단체장, 체육인, 선수 등 250여 명이 참석해 한해 성과를 공유하고 체육 발전 의지를 다졌다.

행사는 한 해 활동을 정리하는 성과보고로 문을 열었으며, 이어 유공자 표창 기념촬영,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시상은 전북자치도지사상, 전북자치도지사상, 장수군수상, 장수군의장상, 도체육회장상, 체육대상 등 다양한 부문에서 이뤄졌으며, 분야별 수상자들이 무대에 올라 소감을 전하며 참가자들의 축하 박수를 받았다.

올해 전북자치도지사상은 △장수군체육회(최규언·김하나) △장수군민속경기협회(김순자)가, 전북자치도지사상은 △장수군체육회(김미숙)가, 장수군수상은 △장수군민속



경기협회(유영수)가 각각 수상했다.

또한 장수군의장상에는 △장수군그라운드골프협회(정영모), 도체육회장상에는 △천천천체육회(이성길) △계북천체육회(백정현) △장수군축구협회(김용두)가 선정되었으며, 체육대상은 △장수군야구소프트볼협회(이재형)가 차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장애인체육회 탁구단, 백영복 선수 '체육훈장 맹호장' 수훈

장수군은 웨스턴조선서울에서 열린 '2025 체육발전 유공포상 및 제63회 대한민국체육상 전수식'에서 장수군장애인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탁구단 소속 백영복 선수가 체육훈장 맹호장을 수훈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해 대한민국체육상 9명을 포함한 총 60명의 체육 유공자를 선정·포상한 행사로, 대한민국 체육 발전에 기여한 선수·지도자에게 수여되는 최고 권위의 체육 분야 서훈이다.

맹호장은 국제무대에서 국가대표로서 탁월한 업적을 쌓은 선수에게 주어지는 권위 있는 훈장으로 평가된다.

백영복 선수는 도교패럴림픽 탁구 단체전 은메달리스트로 국내외의 주요 국제대회에서 꾸준한 성과를 기록하며 한국 장애인탁구의 위상을 높여온 대표 선수다.

경기력뿐 아니라 성실한 훈련 태도와 후배 선수에 대한 배려심으로 팀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선수로 알려져 있다.



MG새마을금고 전북, 3000만원 상당 물품 전달

새마을금고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지난 11월 27일 전북 정읍시 신의면 안계경로당에서 보컬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전달식을 개최하며 지역사회 상생과 협력의 가치를 실천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최지능 본부장과 신의새마을금고 이사장 박영실 안계경로당 회장 임재기 등 지역 내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보컬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과 주민들이 배제되지 않고 서로 돕고 협력하는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마련된 사업이다. 전국적으로 총 80개 공동체 시설에 약 4억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으며, 전북 지역에서는 6개 공동체 시설에 총 3,000만 원 상당의 물품이 전달됐다.

/오상근 기자



전은, 전주에 'JB어르신 문화쉼터' 21·22호 개소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전주시 영동고덕아파트경로당과 우정아파트경로당에서 'JB어르신 문화쉼터' 21호와 22호 오픈식을 각각 개최하며, 어르신들의 사회적 교류와 정서적 안정에 기여할 쾌적한 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약 30년의 역사를 지닌 영동고덕아파트경로당은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전북은행은 도배, 싱크대 교체 등 생활환경 전반을 새롭게 정비해 어르신들이 더욱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식사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한편 우정아파트경로당은 경제적 여건상 환경 개선과 편의시설 확충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감안, 전북은행이 도배 작업과 함께 비가림막 설치, 에어컨 교체 등을 통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쉼터로 거듭나도록 힘썼다.

/오상근 기자

이숙자 남원시의원, 자원봉사 활성화 공로 감사패

남원시의회 이숙자 의원이 최근, 자원봉사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해 열린 '제20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자원봉사자의 헌신과 노력이 지역사회에 갖는 의미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공감해 왔다.

이를 토대로 자원봉사자의 권익 향상 활동 기반 강화, 지역사회 봉사문화 확산을 위한 5분 자유발언 등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방안에도 앞장서 왔다.

이숙자 의원은 "지역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비하면 저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헌정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건협 전북지회, 무주군에 장학금 300만원 기탁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관계자들이 지난 2일 무주군청을 방문해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임근홍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장은 "무주 학생들의 꿈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고 싶다"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는 건설업자의 품위 보전 및 권익 증진과 건설업 관련 제도 개선, 전문기술 향상 등을 주도로 하며, 도내 건설업과 지역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단체로, 해마다 2천 4백여 개 회원사가 뜻을 모아 도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성금과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우석아엔씨 최용기 회장, 김제시 고향사랑 등 기부

김제시는 2일 (주)우석아엔씨 최용기 회장이 김제시 고향사랑기부제에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산단에 소재한 (주)우석아엔씨는 국내 다수 지역에서 설치되어 있는 초음파 수도미터기 제조 및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온사이트 수소 공급 기술 등 자원 재활용사업 및 국내 첨단 환경기술분야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최용기 회장은 "업무차 방문이 잦은 김제시에서 우연히 지정기부사업에 대해 접했다"라며, "하이를 키우기 힘든 시대인데, 육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고창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26만원 후원금 받아

고창군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최혜성 원장은 최근 지역 사회로부터 따뜻한 후원금을 전달받았다.

이번 후원금은 지역 내 교육 연계를 통한 나눔 실천의 의미가 더욱 깊다.

제과제빵 강의를 맡아 온 레몬클래스 이세진 강사는 고창 지원교육청에서 지원받은 지원금으로 약 1년 동안 고창군 내 초등학생 대상으로 학교 밖 놀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프로그램 중 진행된 음료 판매활동을 통해 얻은 판매 수익금 23만원을 본 시설에 후원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의 모범을 보였다.

/고창=김영식 기자